

노동의 예찬이 스민 책의 귀족들

송성재 디자이너, 호서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윌리엄 모리스의 책으로 펼쳐진 유토피아〉전

‘천의 재능을 가진 예술가’ 윌리엄 모리스가 만든 책 전집이 국내 최초로 전시됐다. 헤이리에서 열린 <캠스콧 프레스 북컬렉션 특별전-윌리엄 모리스, 책으로 펼쳐는 유토피아>에서다. 모리스의 책은 전 세계 장서가들로부터 ‘꿈의 소장품’으로 불리며, 어엿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희귀본 전집을 한 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모리스의 고향인 영국에서도 유례가 없었다고 한다. 영국에서 북 아트를 공부하고 온 디자이너가 그의 예술혼과 장인정신을 만나러 헤이리를 찾았다.

국내 최초로 전시된 모리스의 작품

비오는 가을 주말 헤이리. 봄비는 사람들과 건물들 속에서 ‘북뮤지엄 윌리엄 모리스’(Book Museum William Morris)라는 이름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풍경처럼 보였다. 유럽풍도, 그렇다고 공예나 장인적 분위기가 담겨 있는 곳도 아닌 것 같은 인상. 전시장은 지하로 열려 있었고, 현대적인 느낌의 카페를 통해 내려가니 비로소 윌리엄 모리스의 사진과 함께 그의 작업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저 몇 점, 혹은 복제 소품을 선보이고 마는 유명 전시이려니 했는데, 제법 많은 책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한길사 김언호 사장이 손수 수집한 모리스의 책 53종

66권 전체가 고스란히 진열되었다 한다.

관람객으로서 감격을 맛보기에 충분한 순간이었다. 현대 인쇄와 책 역사의 한 장을 아름답게 장식한 그의 책 원본(물론 책은 기본적으로 복제품인 것이지만)을, 그것도 모리스가 만든 책 전집을, 서울서 사십여 분 남짓 차를 몰고 온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금방 믿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 없었다. 왜 그 작은 공간에 ‘북뮤지엄 윌리엄 모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예사롭지 않은 장소라는 사실을 비로소 ‘윌리엄 모리스, 책으로 말하는 유토피아’전이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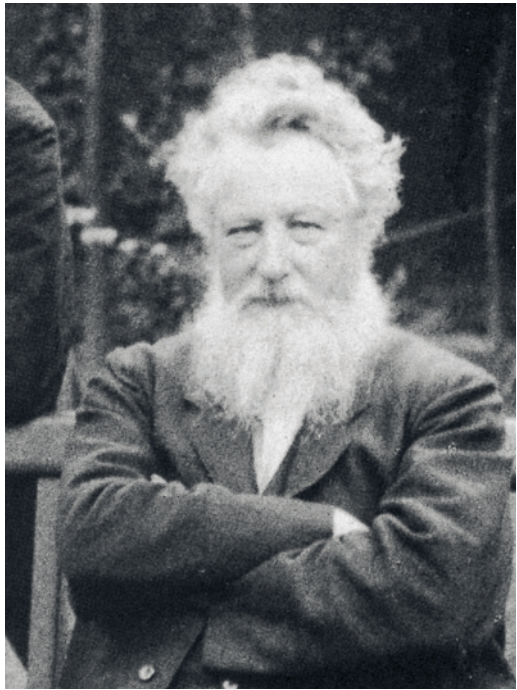
우리 속에 들어 있는 책들을 만지거나 들춰보지 못하는 것은 아쉬웠지만 책의 표지 전면과 책등, 그리고 펼친 페이지를 함께 진열한 것으로 책의 모습과 상태를 짐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모리스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초서 작품집>(The Works of Geoffrey Chaucer)을 비롯해 그가 직접 쓰고 만든 책들은 모두 값진 보석처럼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리스의 생애와 다양한 면모

19세기 말 미술공예운동이나 레드 하우스, 캠스콧처럼 모리스를 따라다니는 단어들을 뒤로 두고 떠올리게 되는 모리스의 인상은 유명 영화배우처럼 보이게 하는 멋진 수염과 지적인 눈빛을 담은 그의 사진에 들어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 등장하는 작곡가나 철학자 같은, 이방인에겐 그리 특이하지 않으면서도 무게가 느껴지는 권위적 인상의 이름이다.

윌리엄 모리스는 하나의 직업이나 성격으로





소설, 시, 회화, 디자인, 출판, 건축 등 다방면에 두각을 보인 윌리엄 모리스 (1834-1896).

오른쪽 페이지/ 모리스가 죽기 4개월 전 완성한 〈초서 작품집〉. 애센덴 공방의 〈돈키호테〉, 도브스 공방의 〈성서〉와 더불어 세계 3대 아름다운 인쇄 본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고 여러 주자소, 인쇄소 등에 제공했다.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상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훗날 영국의 신문사 〈더 타임스〉가 전용 서체인 ‘타임스로만’을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로만체 활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의 미국 사회나 지적재산권에 대해 극도로 엄격해진 현재와 비교해도 영국인들의 유연성과 민주적 사상이 얼마나 독특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무엇보다 진하게 남은 모리스 생에 대한 여운은 그의 아내 제인 버든과의 관계다. 라파엘전파의 화가 로제티로부터 소개받은 제인은 긴 머리와 흰 목, 꿈꾸는 듯한 눈매, 신비한 자태를 가진 젊고 아름다운 모델이었다. 모리스는 그녀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만, 그들 관계는 불행했고 제인은 로제티와 은밀한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 모리스는 말년까지 제인과 로제티의 일로 마음의 상처를 가져야 했다. 그녀와의 관계는 물론, 세 사람의 관계를 파괴적으로 이끌지 않고 모두가 한 집에서 살도록 했던 모리스의 결정은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작업 중 많은 부분이 아내에 대한 사랑과 체념에서 비롯된 일종의 예술적 승화라고 보는 해석이 틀리지 않다면 모리스의 자제력과 열정은 결국 그의 글과 책들에 담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책들이 예사롭지 않은 서정적 아름다움과 일관된 집념을 담은 결정들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다. 1830년대 옥스퍼드대학 엑시터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친구 번 존스를 만나고, 존 러스킨의 사상을 접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러스킨의 영향으로 고딕 건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건축가가 되려고 건축 사무소에 들어갔으나, 다시 회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1850년대 말에는 ‘모리스 마셜-포크너 상회’를 설립하여 회화에 국한하지 않고 벽지, 스테인드글라스, 가구에 이르는, 소위 모든 실내 생활환경 미술을 다루게 되었다. ‘장식예술’이라는 강연을 하고, 고대건축보존협회를 설립하는 등의 사회활동도 벌였다.

1890년에 모리스가 설립한 켄스콧은 비록 런던 서부의 작은 인쇄소였지만, 여기서 모리스는 자신이 디자인한 전용 서체를 구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용 인쇄기와 수제 종이로 인쇄와 출판을 하여 실로 역사에 남는 책들을 남기게 된다. 켄스콧이나 캐슬론 등 다른 서체 개발자들이 서체를 자신의 소중한 재산으로 간주했던 것에 비해, 모리스는 자기가 만든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





THIS CROSS-TREE HERE
DOETH JESUS BEAR, WHO
SWEETENED FIRST, THE
DEATH ACCURSED.
HERE all things ready are, make haste, make haste, away;
For long this work will be, and very short this day.
Why then, go on to act: here's wonders to be done,
Before the last least sand of thy ninth hour be run.
Or ere dark clouds do dull, or dead the mid-day's sun.
Act when thou wilt, Blood will
be spilt; Pure balm, that shall
Bring health to all. Why,
then, begin To pour first in
Some drops of wine, Instead
of brine, To search the wound,
So long unsound; And when
that's done, Let oil next run,
To cure the sore. Sin made before.
And, O! dear Christ! E'en as
thou diest, Look down, & see
Us weep for thee. And though,
love knows, Thy dreadful woes
We cannot ease; Yet do thou
please, Who mercy art, To
accept each heart, That gladly
would Help, if it could.
Meanwhile, let me, Beneath
this tree, This honour have,
To make my grave.

〈로버트 헤릭 시선집〉의 본문. 짙은 검은색 글자와 세밀한 문양에서 모리스의 희열이 느껴진다. 많은 고민과 실험을 통해 완성된 글자가 세심한 고려 하에 배열되어 있고, 시의 행을 바꾸는 대신 금적색 잎사귀 무늬로 행을 구분했다. 유명한 화가이자 모리스의 친구였던 번 존스의 삽화가 책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모리스 작품의 독특한 스타일

모리스의 책은 대부분 검은색이 짙은 서체와 넝쿨 등의 장식으로 채워 있다. 이른바 모리스 스타일이다. 수없이 많은 손길을 따라 새겨지고 인쇄된 그림과 글자의 세밀한 변화들 속에서 마치 희열 같은 것이 전해진다. 이것이 그가 말한 노동의 기쁨이었을까. 윌리엄 모리스 전집에 실린 모리스의 사진 아래 실날같은 작가의 크레디트는 이 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얘기하려는 것 같았다. 〈콜리지의 시선집〉의 단순한 벽지 무늬 넝쿨에 피어 있는 꽃들도 어느 하나 같은 모양이 없다.

다소 어두운 지면으로 무거워 보이고 읽기에도 힘들다는 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리스의 책에 채워진 글자들은 많은 시험을 거친 활자 디자인과 그것들의 공간 안배로 최선의 가독성을 얻으려 한,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포스터로 제작되어 전시장 벽에 걸려있던 〈로버트 헤릭 시선집〉의 한 페이지에 어찌면 윌리엄 모리스의 생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앙에 십자가 모양으로 디자인된 문안은 별다른 장식 없이 흰 여백도 넓다. 글자는 읽기 편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본문 안에는 별다른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시의 행을 바꾸는 대신 행과 행 사이에는 금적색의 잎사귀 무늬를 넣었다. 〈웬스콧 프레스의 설립 취지문〉에서 모리스가 밝힌 대로 “눈을 현혹하지 않으면서 읽기 쉬운 글자와 [...] 이들 글자들의 간격, 행과 행의 간격을 세심하게 고려”한 작품의 전형이다.

모리스 레이아웃의 특징은 글자와 문양을



가득 채우는 것과 함께 그렇게 단단하게 힘을 부여한 문안을 페이지의 어디쯤 배치하느냐의 판단에 있는 것 같다. 그가 밝힌 것에 따르면 책이 접히는 안쪽 여백은 넓지 않아야 한다. 펼친 양면이 하나의 그림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페이지 상단의 여백은 그것보다는 넓어야 한다. 그리고 바깥쪽 여백이 좀더 넓고 하단의 여백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넓게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이전 서적의 타이포그래피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모리스는 그에 충실하게 모든 책을 디자인했고 여백은 식물 문양으로 가득 채워지거나 때로 흰 여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모리스의 책들은 주로 수제 종이에 인쇄되었고 소량은 양피지(velum)에 인쇄되었다. 양피지 인쇄본이 몇 권 전시되어, 종이책과 양피지의 인쇄상태를 비교해볼 수 있었다. 정교한 정도로 보면 종이 위의 인쇄상태는 양피지에 비할 바 아니다. 컴

퓨터의 해상도로 본다면 72dpi(dots per inch, 수치가 높을수록 고해상도)와 300dpi의 차이쯤? 종이는 작은 펄프 섬유들을 모아 누른 것이다. 여기에 인쇄된 활자들은 작고 섬세해질수록 표면 입자의 질감에 영향을 받는다. 모리스는 기계로 만든 종이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경험과 정성을 담아 만든 수제 종이 위에서 활자로 눌린 먹의 인상과 힘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생각했다. 양피지는 보통의 가죽만큼 중후하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않지만 적어도 글자나 그림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읽는 데는 훨씬 선명하고 깔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전시장의 책 대부분은 어둡고 무거운 가죽 대신 양피지나 두꺼운 종이를 표지가 만들어져 있었다. 고서를 모아 보여주는 전시장 분위기가 처음부터 색다른 인상을 풍긴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했던 모양이다. 붉은 쇼케이스를 빼고 진열품이 가진 색상은 그저 하얀 종이나 표지 장정, 검정색의 글자와



출판에 대한 모리스의 열정은 산업화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출판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과 품격, 노동의 가치와 기쁨을 되찾고자 한 것이다. 수제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어 인쇄한 모리스의 책은 장인정신이 담긴 아날로그 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비롯하여 종교적 의식 속에서 자라난 상상력과 염원의 자세는 아닐까 짐작하게 한다. 그가 열의와 시간을 쏟아 만든 책들은 출판의 관점에서는 초기 인쇄시대를 추구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야성과 엄격한 구조를 가지고 표현한 고딕 양식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것은 신이나 이상적 세계를 향한 예배나 정성의 은유일 수도 있다. 가는 선 하나, 작은 문양 하나에 담겨 있는 숨씨는 세상을 만드는 세밀하고 빈틈없는 신의 일과 연결된 것은 아니었을까? 동시에 그가 숭상한 것은 인간 본연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향한 염원일 수도 있다. 주어진 소명을 다해 자기의 존재와 관계, 소통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자세. 모리스가 직접 디자인해 넣었던 포도넝쿨 문양처럼 그렇게 얹혀 삶을 이루는 것, 생명을 이루고 아름다움을 엮어가는 것, 거기에 담긴 이야기와 사상과 풍경들을 표현하고, 그것을 신에게 바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동의와 감동을 얻음으로써 실천적 삶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리라.

당시의 사람들에게겐 드높은 성취라고 받아들여졌던 19세기의 산업화를 처참한 광경으로 바라본 인물. 똑같은 물건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일,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모든 다른 가치를 희생하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즐거움마저 말살하는 사회, 심지어는 자기가 만드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줄도 모르고 공장의 한쪽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기계 같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을 꿈꾸었던 모리스.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즐거움과 행복을 주어야 한다는 이 사회주의자의 생

장식, 그리고 붉은색 장식이나 이니셜 정도가 전부였다. 그 위에 내려앉은 퇴색이 시간의 흐름을 넋지시 알려주며 밝은 조명과 균형을 이루었을 뿐.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출판

윌리엄 모리스는 산업화되면서 변해가는 사회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의식주의 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획일화되고 값싸지면서 낮은 품질의 흉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것에 대한 저항과 개혁을 실천하려 했다. 식물과 건축 등에서 피폐해진 예술과 노동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던 그가 글쓰기를 시작으로 말년에 출판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늘어나는 정보의 양과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책이 단지 그릇으로서만 기능하면서 서서히 외형적 아름다움이나 품격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까닭이다.

모리스가 쓴 글은 주로 유토피아니 피안이니 하는 현실을 떠난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어쩌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개탄에서

각은 산업화를 통해 구현될 미래의 풍요나 평등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모리스가 꿈꾼 유토피아는 과연 이 땅에 올까

그의 작품들을 실물로 보는 마음은 마치 그런 모순을 상징이라도 하듯 두 가지로 나뉘어갔다. 무거운 판면의 그림과 활자는 요즘 우리가 보는 간결하고 밝은 느낌의 책과는 거리가 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활자를 조합하고 문양을 새기는 일의 숭고함을 웅변하는 이면에는, 그가 추구했던 그 중세와 초기 인쇄의 미덕이 여느 보통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도 높고 먼 것이었을지 모른다. 모리스는 공예적 손길과 노동의 기쁨을 스스로 실천했으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방법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의 책이 뿜어내는 천상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전시장의 쇼케이스에서 보여줄 그저 한 인물이거나 나라의 유산처럼 일품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었을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맛있는 음식의 디스플레이가 웅변하는 음식 이상의 가치처럼, 모리스는 자신만의 유토피아에서 꿈처럼 사람들을 기다린 전설적 인물이었다. 그가 재현하려 했던 구텐베르크적 품격이 사실은 대단히 속되고 천박한 동력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짐짓 모른 체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은 멈추어버린 66권의 모리스 바이블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연결하지 못하고 홀로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가 주장했던 정신과 공예, 출판 운동은 후예들에 의해 여러 나라로 이어졌으나, 그것은

단지 모리스의 정신과 열정을 기리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불과 며칠이면 수만 권이 인쇄되어 쉽게 서점에 화려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이 땅의 책들은, 모리스가 추구하려 했던 물리적 아름다움과 책의 생명력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가볍고 천박한 옷과 정신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빼곡히 들어찬 문안의 검은 힘과 문양들, 그것을 담고 있는 종이를 통해 아무리 모리스가 눈부신 손짓을 하더라도 말이다.

십여 년 전 영국에서 잠시 공부했던 북 아트의 개념은 과연 지금 여기서 어떤 울림을 낼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본다. 당장의 정답을 찾지 않고 그저 길에서 서성이며 생각하도록 하는 영국에서의 가르침이나 연구에 비해, 당장 오늘 무엇이든 결말을 짓고 돈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한국의 작은 전시장에서 모리스의 정신이 얼마나 심금을 흔들 수 있을지. 손으로 책을 만든다는 이 땅의 적지 않은 애호가들도 과연 중세 고딕 건축물을 짓듯 책을 만들고 글을 써나갔던 모리스의 사상과 행동에 다가설 수는 있는 것일지.

글쓴이 **송성재**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미술대학 캠퍼웰칼리지에서 북아트를 전공했다. 엘지애드, 동아일보 출판국 아트디렉터를 거쳐 현재 호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있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편집분과 부회장, 서울국제 북아트페어 기획(문광부지원), 프랑크푸르트북페어 아티스트북서울 부스 기획 및 운영(문광부 지원) 등을 맡았다.